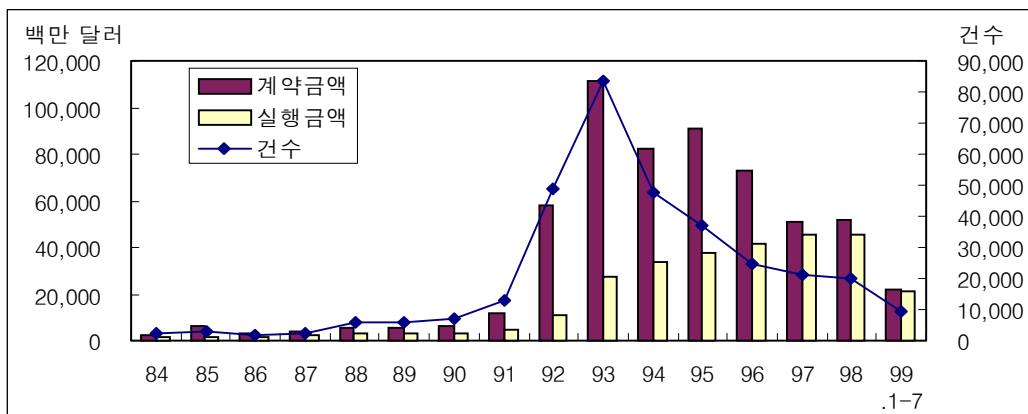


외국인직접투자 6년만에 최저 수준 기록 예상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는 1979년 개혁·개방정책을 단행한지 20여 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반전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전 중국이 핵심 개발전략으로 추진해왔던 자력갱생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눈을 바깥으로 돌려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서방기업들도 12억 이상의 세계최대 인구를 보유한 중국시장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중국의 시장개방에 부응하여 앞다툼 중국 진출이 계속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시장개방이 연해 일부지역에서 내륙에까지 전면적으로 확산됨과 동시에 시장경제를 더욱 지향해나가는 정책의 대전환이 시작되자, 시장 선점을 위한 다국적기업들의 중국 투자열기는 더욱 확산되었다. 매년 개도국 외국인투자의 약 30%가 중국에 집중될 정도로 중국투자 열기는 대단하였다. 1983~96년의 14년 동안 평균 외국인투자 증가율은 24.3%의 고도성장 가도를 달려왔다.

대 중국 외국인투자 추이



자료 : 「中國統計年鑑」, 각년도 및 「中國統計摘要」, 1999년 판 등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 크게 둔화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들어 이러한 중국 투자의 기세가 점차 수그러들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7년 이후 둔화 폭은 더욱 두드러졌고, 급기야 올해 1~8월 중 외국인직접투자는 247억 4,9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9.7% 감소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실투자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 감소세로 반전된 셈이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올해 중국의 외국인투자 규모는 7년만에 가장 저조한 330억 달러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 1~8월 말 현재 형태별로 본 외국인직접투자 현황을 보면 독자기업과 합자기업이 각각 99억 300만 달러와 95억 8,000만 달러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주식제 기업이나 합작개발, M&A 등의 외국인투자는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의 외국인투자 현황
(1999년 1~8월)

단위 : 건, 백만 달러, %

	계약 기준				투자기준	
	건수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직접투자	10,795	-17.32	25,332	-20.09	24,749	-9.73
합자	4,431	-13.32	8,447	-20.09	9,580	-11.05
합작	1,047	-20.50	4,348	-21.87	4,823	-21.59
독자	5,307	-19.79	12,348	-26.22	9,903	-2.21
주식제	2	-71.43	116	-9.58	123	-31.28
합작개발	5	25.00	36	-91.15	278	85.33
기타	3	-	37	20.00	42	5.00
기타투자	-	-	1,723	-13.50	1,764	1.61
주식발행	-	-	525	-16.00	525	-15.59
국제리스	-	-	104	-75.12	264	518
보상무역	-	-	33	-23.26	5	-88.10
위탁가공	-	-	1,061	17.11	970	18.15
총계	10,795	-17.32	27,055	-19.70	26,513	-9.06

자료 : 홍콩 經濟導報社, 中國經濟新聞, 1999.10.4, p.23.

외국인투자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1990년대 중반 높은 외국인투자에 자신감을 갖게 된 중국정부의 외자우대정책의 축소 혹은 폐지라는 정책기조의 변화에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기계설비 수입관세 면제조치 철폐이다. 1996년 4월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모국에서의 기

계설비 도입 시에 한해 면제되었던 수입관세 우대제도를 철폐하였는데 당시 중국의 높은 수입관세율과 이에 부과되는 增值稅(부가가치세)율을 감안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들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이외에도 1995년 6월에는 ‘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을 발표 당시 중국정부가 과잉 생산되고 있는 품목과 공해과다 유발품목 등 경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기 시작한 것도 한 몫을 하였다.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 중국시장이 1990년대 초반 경쟁적 투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러한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 재검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생기면서 대 중국 투자 열기가 다소 수그러들게 되었다.

한편, 1997년 들어서는 아시아 경제의 침체와 중국경제의 불안이 중국 투자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홍콩, 일본 등 동아시아의 주요국들이 자국 경제여건의 악화로 해외투자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외에 서방국가들도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구매력 감소 및 중국에서의 금융위기 발생 및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내수침체 등으로 인해 대 중국 투자에 더욱 신중한 자세를 보였고 그 결과 1998년 이후 중국 투자는 크게 위축되었다.

정부의 경제회생 노력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

중국 투자 감소는 경제 회생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할 우려도 있다. 가장 큰 불안감은 외국인투자 위축으로 인한 중국 수출 감소이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액이 중국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1997년 이후 국유기업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기여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금리 인하, 증치세 환급률 인상, 사영기업의 수출입 권한 부여 등 여러 가지 수출 활성화 정책을 펴하고 있지만 별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마저 감소한다면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투자 감소는 고용 창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중국 통계에 따르면 1998년 말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의 총 고용자수는 564만 명으로 총 고용인원의 4.6%를 차지하고 있다.¹⁾ 특히 1990년대 들어 외국인투자가

1) 그러나 여기에는 三資企業(合資, 合作 및 獨資企業) 형식의 외국인투자기업만 계상될 뿐 주식회사나 기타 M&A 등에 의한 지분합작 형식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되고 있어 실제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비중은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됨. 실제로 이러한 통계연감에 의한 공식통계는 실제 중국 정부의 집계와는 달리 상당히 과소 평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1997년 1월

급증하면서 이들을 통한 고용자수 증가율도 매년 3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의 외국인투자 감소는 현재 실업률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2000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 예상

현재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진출 전망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지만 우려보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외국인투자를 억제하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을 자주 거론되었다. 그 동안 국내외적으로 위안화 평가절하 문제를 놓고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중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최근의 수출 회복 여건을 볼 때 현재로서는 절하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더군다나 중국의 WTO 가입 확정으로 중국 외국인투자와 수출이 크게 호전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도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안화 절하 압력은 크게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 환율제도는 관리변동환율제 하에서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위안화 환율을 고정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화 측면에서 보면 WTO 가입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빌미로 환율변동폭을 확대하는 한편, 환율시장 개입을 자제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평가절하를 배제할 수는 없다. 위안화 절하는 그 여파에 대한 분석을 차치하고 단순히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 진출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왕에 투자할 바에야 시기를 늦춰 위안화 절하가 이루어진 후 투자하겠다는 관망세가 지속될 수도 있고, 이것이 외국인투자를 감소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중국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과 WTO 가입 이후 중국시장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신뢰도 제고로 점진적으로 대중국 투자는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미국-중국간 합의한 중국의 WTO 가입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중국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호조건으로 생각된다. 물론 WTO 가입은 외국기업의 내국민대우 차원에서 그 동안 중국 정부가 투자 유치를 위해 시행해왔던 세제우대조치 등을 철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투자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전국 대외경제 무역 공작회의에서 1996년 말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고용자수는 약 1,700만 명에 달했다고 발표된 바 있음(전재욱, "중국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과와 과제", 「지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8, p.70).

그러나 이 보다는 관련 투자법규와 제도상의 투명성(transparency) 제고와 함께 현재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 보험, 관광, 운송 등 서비스시장의 개방 확산으로 대 중국 시장접근에의 용이성(accessibility)을 이용해 시장 선점을 꾀하고자 하는 서방기업들의 투자증대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WTO 가입 이후 5년 정도 지나면 대 중국 외국인투자는 현재의 300억~400억 달러에서 약 1,0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우리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대중 진출 요망

현재 우리기업들의 대 중국 진출 여건은 상당히 취약하다. 우선 건당 투자규모가 300만 달러 미만의 중소형 투자가 대부분인데다가 이들 대부분이 특별한 기술력을 요하지 않은 단순 경공업부문에 대한 투자여서 여타국 외국인투자기업들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점차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늘어나고 있는 대기업들의 상황도 크게 다를 게 없다. 대기업들이 주력 투자하고 있는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의 부문에 대한 중국기업들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2억 이상의 거대시장에 대한 잠재력만 믿고 만들면 판매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경쟁업종의 중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수준, 중국 정부의 관련 정책 및 전반적인 시장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시장개방 확대가 예상되는 서비스부문에 있어서도 우리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진출을 꾀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全善俊】